

# 경남대 산학협력으로 지역밀착형 대학 구현하다



1 경남대 전경 2 박은주 LINC+사업단 단장 3 박재규 총장(가운데)과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4 박재규 총장(오른쪽)이 산학협력페스티벌에 참여해 설명을 듣고 있다.



경남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이하 LINC+사업단)은 인구 감소와 인구 공동화 현상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지방 소멸'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해답을 제시하고자 '지역 밀착형 대학의 구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산학협력 선순환 생태계 구축, 지역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산업)연계 교과목' 운영

현재 경남대 LINC+사업단은 정규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수업을 진행하는 '지역사회(산업)연계 교과목'이라는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2학기, 11개 교과목 303명의 수강 학생으로 시작해 2018년 44개 교과목 1천727명, 2019년에는 37개 교과목 1천485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교과목은 담당 교수와 학생들이 모두 참석하는 '청년 지역사회 혁신가 발대식'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직접 지역 현장 방문'과 '교과 활동 주제 중심 문제 발굴·해결' 등 현장에 접목하는 수업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기마다 교과목의 결과물을 모아 '청바지(청년이 바꾸는 지역사회)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성과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이 교과목의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 분석과 기획'과 '학교 폭력의 이론과 실제'가 있다. '문화 분석과 기획'은 사회학과 학생들이 팀을 이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사는 송종남(86) 할머니 등 4명을 만나 이들의 인생 여정을 수업에서 배운 '구술사 기법'을 이용해 기록했다. 학생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전쟁과 3·15 의거 등 질곡의 현대사를 생생히 듣고 기록했으며, 기록 자료를 취합해 '여

름 17도, 겨울 27도'라는 책을 발간했다.

지역사회연계 교과목을 통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지역사회는 잊힌 역사를 복원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콘텐츠산업의 기본 자료를 축적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활동은 경남대 LINC+사업단이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을 운영하며 지향하는 목표를 가장 잘 보여준 예로 꼽히고 있다. '학교 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교과목은 교육학과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론과 사례만 나열하는 '강의식 예방 교육'을 한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담은 '코끼리가말야'라는 브랜치(branch) 북을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수업에서 개발한 브랜치 북을 응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해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소멸해 가는 지역의 문화 자산을 발굴해 콘텐츠화한 사례도 있다. 마산 교방동은 도시 재개발로 새로운 아파트촌이 들어서면서 주민 간 소통 부재로 갈등이 발생했다. 교방동 주민들은 마을 정체성 확립과 마을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력 전문기관을 모색하고 있었다.

LINC+사업단은 교방동 주민을 위해 지역의 수요와 연계된 담당 공무원 미팅, 주민 인식조사 등을 활용해 '교방동 우리 마을 보물찾기 미션'이라는 마을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마을 교육 콘텐츠에 미션 수행형 활동 교구 등을 적용, 주민들의 화합과 마을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도 했다.

LINC+사업단의 지역사회연계 교과목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부 '2017년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에서 최우수상, '2019년 산학협력 EXPO'에서는 인력양성 부문 대상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❶